

읽은이의 마음이 스친 헌책을 찾아서

헌책방 순례하는 이종욱·최종규·박중서씨

누렇게 바랜 종이, 콧속의 곰팡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종이문체에 불과한
헌책에 남다른 애정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헌책은 단순히 쓴 책도,
호기취미를 만족시키는 장식물도 아니다.
그들에게 헌책은 이미 조종이 울린
'읽는 문화'의 버팀목이며
우리를 지배하는 과거 문화의 파수꾼이다.



"시인 안재찬씨(류시화)가 시인이자 제 친구인 권대웅과 79년 11월 24일 학림에서 교환한 책이라는 메모가 있는 책입니다" | 이종욱

"저자 예응해씨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친필 사인을 헌책방에서 화이트로 깨끗이 지웠더군요" | 박중서

헌책을 찾아 다니는 나는

이종욱 —— 저는 우리나라 학문 전분야의 연구비 지원을 맡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평가파트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헌책에 관심 가진 저는 올해로 20년째인데요, 그때는 새 책을 산다는 경제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헌책을 고서와 헌책으로 나눌 수 있다면 저는 현대사적인 개념의 헌책만을 봤습니다. 헌책방이 많았던 삼선교 주변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레 친해졌죠.

최종규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절판된 문제집을 찾다가 헌책방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자라는 껌냥을 채우려고 여러 분야의 책을 샀습니다. 군대 가면서 뭘 해 먹고 사나 고민하게 됐는데, 그렇게 잡은 일이 우리말 운동입니다. 고졸 정도의 친구들과 눈높이를 맞추려고 다니던 대학은 얼마전 그만뒀습니다.

박중서 —— 두 분에 비하면 저는 아마추어네요. 92년 대학 들어가면서 내가 참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책을 구하려니 헌책방을 찾게 됐죠. 친구와 함께 서울역, 청계천을 돌아보면서 이런 곳이 있었나 감탄했습니다. 처음 산 책이 존 스타인 벡의 《분노의 포도》와 에리히 프롬의 《자유에서의 도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헌책, 이래서 좋다

최종규 —— 책의 판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을 하면 말투는 달라집니다. 특히 옛날 교과서에 관심이 많은데, 교과서나 언어학 고전 초판에는 책이 찍어진 당시의 말이 담겨 있죠. 말을 통해 시대나 생각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헌책의 가치는 높습니다.

박중서 ——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는 제게 책은 자료가 됩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여태까지 나온 책을 모두 한번쯤은 읽어야 하지 않나 하는 사명감도 있구요. 헌책방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절판된 책 가운데는 볼 만한 책이 많습니다.

이종욱 —— 세대차가 나네요. 저는 81학번인데, 헌책은 사람을 만나는 한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밑줄, 메모를 통해서 책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밑줄과 메모 때문에 책의 의지대로 읽지 못할지 모르지만 먼저 읽은이와 소통한다는 점에서 헌책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사이버스페이스인 셈이죠.

즐거 찾는 헌책방

박중서 —— 학교 근처 헌책방에 주로 들르는데, 서울 용산의 '뿌리서적'은 일주일에 한번

씩 꼭 갑니다. 저녁이면 모여드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음담패설을 듣는 재미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책은 10분 보고, 이야기 듣느라 몇 시간씩 좁은 서점에서 있다 읊니다.

최종규 —— 제가 나고 자란 인천 창영동의 아벨서점은 서울에서 책을 골라 사와 좋은 책이 많고, 용산의 뿌리는 목이 좋아 종수가 많고 최신간 헌책을 구할 수 있어요. 독립문 골목책방은 정부 간행 비매품 연구자료가, 홍대 앞 오고서(구 글벗서점)에는 건축예술, 미술 관련 책이 많습니다. 외대 앞 신고책방은 책으로 가득한 아저씨네 집에 가 보고 헌책방의 진가를 느낀 곳입니다.

이종욱 —— 예전에는 《옛책사랑》을 펴냈던 '공씨책방'과 고대 앞 '새한서점', 황학동, 혜화동, 삼선교에 자주 갔습니다. 그곳은 고서가 모이는 인사동과는 아주 다르죠. 지금은 그저 '헌책'이라는 간판이 달린 곳이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헌책방 문화에 대한 생각

이종욱 —— 헌책은 중요한 책의 순환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수서의 개념으로 보면 결과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헌책을 사러 가서 둘러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모두 문화입



이종욱
"헌책은 좋은 독자가 살려낸 책"



박중서
"책방에 꽃피는 사는 애기도 헌책방 찾는 재미"



최종규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립·시립 헌책방을"

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독자죠. 결국 헌책방 문화는 읽는 문화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독서문화의 한 부분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박중서 —— 헌책 사랑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면 지금 것을 낫추는 경향이 나타나게 돼요.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이만큼 책의 개념도 그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헌책방도 없어지고, 그러면 책은 유품이나 수집품 정도가 되겠죠. 지금의 헌책방은 여전히 살아 있는 책을 판다는 점에서 의미있죠.

최종규 —— 헌책방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전에 아벨서점 아주머니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처럼 시립·구립 헌책방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면 어떨까 합니다. 도서관에서 정리하는 책과 주민들의 책을 모아 팔면 좋은 책의 유통창구 역할도 하고, 또 책문화를 제대로 느끼면서 일궈갈 수 있는 마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종욱 —— 헌책방 정책간담회 같은데요. 전에 미국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한 강좌에 30여권의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면 되는 것도 있고, 꼭 사야 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바로 책을 읽게끔 하는 문화 자체가 있는 겁니다. 헌책방 가는 사람이 새책방도 갑니다. 영상이 문화를 주도하는 지금, 왜 읽는 문화가 중요한지를

의사가 진단하듯 같이 토론해 봐야 합니다.

헌책을 사러 다니다 보니

최종규 —— 제대한 지 얼마 안돼 1948년에 한글선학간행에서 출간된 《선가구감(선가귀감)》을 봤는데, 쉬운 말, 바른 말 썼나 조선어학회에서 감수를 받았더군요. 지금은 출판사마다 다른 기준에 맞춰내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만들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또 1950년 6월 15일에 찍은 《초등셈본》의 말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시대가 지나면 뭐든 나아져야 하는데, 출판이나 말, 글은 그런 것 같지 않아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종욱 —— 예전에 산 책들 가운데는 장정이 예쁜 책들이 많았어요. 시집만 500권 정도인데, 몇 번 바뀐 장정을 비교하면서 보는 감회가 남다롭습니다. 대학 다닐 때 데모가 많았는데, 헌책방에서 감옥으로 간 친구의 이름이 적힌 책을 보았을 때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헌책 사서 친구와 선배와 바꿔보는 것도 재미났죠.

박중서 —— 제가 사는 책은 대개 돈 있고 부지런하면 살 수 있는 책입니다. 헌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눈과 자급력이 좋아야 하고, 얼굴에 첩판을 깔아야 해요. 원래 매겨진 가격보다 몇 천원씩 싸게 사는 가격 흥정도 헌책 사는 재미 중 하나죠. 그리고 헌책을 잘 사려면 새 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헌책의 미래

박중서 —— 책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 견해가 많지만 인터넷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이 '아마존'이라니 아이러니컬합니다.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같은 것도 그렇지만 디지털 책은 몇 번씩 다운받아도 원본이 손상되지 않으니 이제 헌책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겠죠.

이종욱 —— 50, 60년대에 비하면 지금 미국의 신문 구독률은 불과 10분의 1이에요. 하지만 맥킨지 등의 문화사상가의 예언과는 달리 신문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니다. 헌책이 없어지는 때는 책을 출판하지 않는 때, 사람들 마음에서 책이 완전히 사라져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책방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를 지배하는 문화를 잊어간다는 것이고, 그 결과 국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문화 전체를 보면서 헌책방의 역할과 위치를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최종규 —— 헌책방이 고물상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됐다는 것만으로 헌책방에 대한 우리 인식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찬 책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헌책이 문화로 대접받길 바랍니다.

— 정리·이현주 기자